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금의 한국교회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신학자들과 목회자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사이에 주일 성수에 대한 의견이 분분 하며 코로나 19 상황이 나아진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증가로 인해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대사회의 발달된 인터넷 환경 및 개인주의적 성향의 심화에 더해진 장기간 지속된 팬데믹 상황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재택근무 및 온라인 강의 등 사회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생활양식과는 크게 다른 새로운 비대면 방식에 사람들을 급속하게 적응하게 만들었다.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어 가는 즈음인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이러한 개인주의적 성향과 익숙해진 비대면 생활환경은 팬데믹과 함께 소멸되는 것이 아닌, 이 시대의 새로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어 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 더불어 질병예방 관련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바이러스들의 출현으로 과거보다 팬데믹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대비하는 사회시스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비대면 생활환경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교회에 있어서 비대면 환경의 장기화는 성도들간의 교제(코이노니아)의 단절을 가져왔고 예배 인원이 감소로 이어지며 신앙공동체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상황에 맞서 교회에서는 성도 간 교제가 제한된 현 상황을 극복하며 신앙공동체를 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시스템을 시급히 갖추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 대안 중 하나로서 커뮤니티 댄스의 활용을 제안하며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커뮤니티 댄스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의 장기화로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 우울증과 영적 좌절감을 극복하고 신앙 공동체 회복의 대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II. 신앙공동체

신앙에 있어서 ‘공동체’의 역할은 중요하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봐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믿음과 양육이 가정과 신앙공동체 안에서 발생했으며, 초대교회시대에도 신앙공동체 안에서 일차적인 신앙교육이 이루어 졌다. 먼저 성서에 나타난 신앙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고 신앙공동체가 개인의 신앙 형성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중요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 1. 성서에 나타난 신앙공동체

성서적 관점에서 인간이 지닌 공동체성의 기초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자체가 ‘공동체’이신 분이시다(고용수, 2009:50).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고백은 피조물이 지닌 공동체성의 본질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성서는 창세기에서 인간의 공동체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창세기 1장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창 1:27)’대로 지음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 창세기 2장 18절에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시면서 “둘이 한 몸(창2:24)”이 되어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혼자가 아닌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도 역시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강조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도 12제자라는 작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활동하셨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교회를 통해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셨다. 바울의 서신에서 교회의 표상으로 사용되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가족, ‘교제(코이노니아)’ 등은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해석하는 신학적 근거”가 된다.

성서에 나타난 신앙공동체는 작게는 ‘가정’ 크게는 ‘교회’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사랑과 보호 격려 속에서 성장하고 양육된다. 교회는 작은 공동체인 ‘가정’의 모습이 확대되어 성도들간의 교제와 사역을 위한 훈련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인 것이다.

### 2. 신앙공동체의 중요성

신앙은 어떠한 교수법을 통해서 완전히 가르쳐지지 않는다. 또 누구의 소유물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전수되지 않는다. 종교의 내용은 가르침으로도 형성될 수 있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다. 신앙은 역사 속에서 신앙의 전통을 담당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와 연결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나타나고, 개혁되며,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된다(John,

H, Westerhof III.1984:54)

신앙교육은 신앙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신앙공동체 없이 신앙은 형성되기 어려우며,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 신앙교육은 신앙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신앙교육에 있어서 신앙공동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박성희, 1998:13)

신앙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앙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웨스터 호프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공동체이다, 그리고 교회는 기독교 신앙이 역사 속에서 고지(告知)되고, 경험되고, 이해되어, 믿음에 뿌리박아 살고 행동하는 공동체가 되는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John. H. Westerhoff III, 1984: 85).”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넘어서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고 교육되는 공동체인 것이다.

### 3. 지금의 신앙공동체의 모습

팬데믹 국가에서 대면예배 금지 조치와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짐으로 성도들은 교회가 아닌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

지금은 대면예배가 전면 허용되고 집합 금지 명령이 해제되었지만, 비대면 예배 기간은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40년이란 시간을 정착지 없이 떠돌았던 것같이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도는 가나안(떠돌이) 성도의 급속한 양산을 가져왔으며(정제영, 2015:17-18). 흩어졌던 성도들은 다시 완전하게 모이지 않고 있다.

지금은 누가 나의 목자이고, 누가 나의 신앙문제를 상대해 주실 목자인지 모르며, 자신의 신앙상태를 체크 받지 못하는 혼돈 상태로 방황하는 가나안(떠돌이) 성도들의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들을 다시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특히 교제(코이노니아)의 회복이 중요하다.

비대면 기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떡을 나누며 기독제목을 나누며 마음을 나누었던 시간, 즉 교제(코이노니아)와 소통의 결여가 신앙 공동체의 약화로 이어진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영적인 교제가 사라진 신앙공동체는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이제 신앙공동체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를 위해 성도들간의 영적 교제의 회복은 반드시 필요하다.

## III. 커뮤니티 댄스

### 1. 커뮤니티 댄스란?

커뮤니티 댄스는 1970년에 영국에서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화두가 되면서 예술의 한 형태로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후 1982년 영국 라번센터에서 지역사회무용 전문가 과정이 개설(대

전일보 [http://www.daejeonilbo.com/newsitem.asp?pk\\_no=1026837](http://www.daejeonilbo.com/newsitem.asp?pk_no=1026837))되면서 커뮤니티 댄스가 점차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아직은 국내에서의 커뮤니티 댄스의 개념은 불분명하고 혼재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혜리(2015)는 연구에서 커뮤니티 댄스에 대한 명료한 정의를 찾을 수 없다고 밝히는 한편, 댄스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시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커뮤니티’의 의미를 따로 살핀 후 댄스와 조합하는 유형과 커뮤니티 아트의 개념을 빌어 정의를 시도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를 중심으로 설명하자면 커뮤니티 댄스를 ‘Community’와 ‘dance’의 합성어로 파악하고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적 해석으로부터 시작하여 공동체 중심이 되는 춤으로 이해하는 접근이고 (이온누리,2013:19), 많은 경우 이러한 접근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이 커뮤니티 댄스에 대해 특정한 개념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설명하려는 노력들은, 현장에서 커뮤니티 댄스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충분히 다르지 못하는 한계와 마주할 수 있다(박관호, 2016:13).

한편, 커뮤니티댄스를 정책적으로 가장 먼저 지원한 국가(최혜리,2015:51)인 영국의 커뮤니티 댄스 재단(Foundation for Community Dance : FDC)의 전 대표이며, 커뮤니티 댄스 행사인 ‘빅댄스(Big Dance)’를 추진한 커뮤니티 댄스 활동가인 켄 바틀렛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커뮤니티 댄스는 모든 사람을 위한 춤이다. 이보다 평등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 춤은 어디서나, 모든 장소에서나 출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춤을 포함하며, 매우 숙련된 전문 무용가들이 주도한다”(김지연,2014:2).

황보주성(2013)은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커뮤니티 댄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커뮤니티 댄스는 모든 사람이 춤을 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용교육을 진행하고 워크숍과 공연을 통하여 움직임을 이용한 개인의 의사표현과 상대방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황보 주성, 2013:29).

이상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커뮤니티 댄스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는 보고 서로 소통함으로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는 춤이다. 또한 공동체 댄스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을 유도하고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구안나,2012:2)

## 2. 커뮤니티 댄스의 필요성

커뮤니티댄스는 사회구성원이 함께 소통하여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인식하고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황보주성:2013,38) 때문에 커뮤니티댄스는 근대의 산업화 이후 도시화된 사회에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소외됨이 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춤의 장르로

서 춤을 통해 교류하고 소통함으로써 공동체 사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을 유도하는 기능을 해왔다.

요즘의 사회는 경제 불균형의 심화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 그리고 다인종 다문화사회에서의 소통과 통합 관련 사회문제가 드러나며, 개인들 간의 소외와 외로움은 깊어지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의 발달된 인터넷 환경 및 심화된 개인주의적 성향에 더불어 2020년 들이닥친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사람들은 대면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과 고립감, 상실감 등의 육체적, 정신적 위협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공동체 시민들의 소통기능 향상 및 사회적응력 향상 및 사회통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댄스의 활성화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 3. 교회에서의 커뮤니티 댄스

본 연구자는 교회무용이 그 어느 때 보다 발달했던 중세시대 교회에서의 행해졌던 무용의 모습을 통해, 신앙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커뮤니티 댄스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세에는 무용이 기독교와 연관을 맺으며 다양한 경우에 사용이 되었다 특히 기독교 행사인 다양한 절기와 축제, 예배의식 속에서 무용이 함께해왔으며 이를 교회무용 또는 기독교무용이라고 칭한다. 교회무용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뜰이나 묘지 주위에서도 자주 추어졌으며 대중들에게도 유행했다

박영애(2006:9)는 『중세시대의 교회무용에 관한 연구』 에서 중세세대에 유행한 교회무용의 유형을 고대 로마 축제와 관련이 있는 축제들 속에서 행해진 무용, 바보들의 축제와 어린이들의 축제에 포함된 무용, 그리고 신비극이나 기적극에서 사용된 무용 등으로 나누고, 중세시대의 특징적인 교회무용으로는 성가대의 무용, 미로에서의 무용, 순교자 축일 무용, 캐롤(carol), 베르 게레트로(Bergerette) 등을 설명한다(박영애,2006:18). 그리고 이 춤들은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즐거움을 제공하는 사회적 역할의 기능도 담겨져 있다고 연구에 밝히고 있다

현대 한국 교회에서 행해지는 무용은 1900년대 교회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손유희와 율동교육에서 시작되었다. 1960년대의 교회에서의 무용은 율동으로써 ‘발표회’나 ‘절기 행사’때 이루어졌으며, 1970년대 이후부터는 교사강습회,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를 통해 율동보급이 이루어졌다(구진영,2015:51).

1980년대 ‘워십댄스’라는 용어로 예배 중에 교회무용이 처음 시작되었으며 무용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교회 내에 무용을 담당하는 단체들이 등장하였다. 교회 내에서의 활동은 실제 예배 내에서의 활동으로 경배와 찬양예배, 문화제, 여름성경학교 감사예배 각종 헌신예배 선교예배에서

행해지고 있다.(최재윤:2003,79).

현대의 교회무용은 어린이의 울동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수진(2015:35)은 『현대 교회 내 기독교무용의 인식 분석에 대한 개선방안』에서 교회무용이 교회 학교를 통해 제자양육에 큰 도움을 주며 공동체 유대감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문 기사와 블로그를 해 살펴본 팬데믹 이전의 교회무용의 사례이다.

중앙일보 - ‘교회에서 공동체의식 다지기 위한 행사로 전 교인이 참여하는 포크댄스와 음악회·성극 등이 이루어졌다. 서울의 수도교회와 초등교회 등은 25일 저녁 전교인이 참석하는 성탄예배를 드린 후 여신도 주관의 포크댄스·칸타타·뮤지컬·복음성가 공연등의 각종 행사를 갖는다. (중략) 이들 교회들의 성탄절 축하행사는 과거의 요란한 축제적 행사보다는 전교인이 함께 참석, 그리스도 공동체의 의미를 느끼고 내세지향적인 신앙제시를 탈피, 오늘의 사회속에서 한 알의 밀알이 돼 세상을 변혁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초석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역동적 신앙자세를 정립하려는 몸부림으로 받아들여진다. (중앙일보. 1987. 12. 23 공동체의식 높이는 성탄절로...)

한국일보 - 갈보리 믿음 교회(담임목사 박형택 3663 W.6th S. LA)는 오는 7월 11일 오후 5시부터 믿음교회 본당과 교육관에서 ‘창립 5주년 기념 우리들의 축제’를 개최한다.. (중략) 또 ‘E 댄스센터 건강댄스’ 이연경 원장과 함께하는 건강댄스와 저녁 식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한국일보. 2009.06.27 / 건강진료·댄스강연도 마련)

블로그- (중략) 예배를 마치고, 커뮤니티 댄스를 함께 추는 시간을 가졌다.  
(<https://naver.me/xHnTGE8U/2017.12.26.11..03> / [가나안교회]12월17일(일), 마지가나안 교회 주일모임(커뮤니티 댄스)]

#### IV. 신앙공동체 유대감 증진을 위한 커뮤니티 댄스의 활용 가능성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커뮤니티 댄스는 역사적으로도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기능을 해왔기에 현재 팬데믹으로 인한 신앙공동체의 약화된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요즘 복지회관 및 문화센터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춤들도 상호간의 소통 증진과 공동체 유대감 강화의 기능을 하나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춤들은 커뮤니티 댄스라고는 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기회의 점진적 증가를 통해 춤을 접하는 일반인들의 태도가 예전에 비해서 수용성이 커지고 유연해지고 있다.

팬데믹 기간 이전부터 많은 교회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무용이 활용되어 왔지만, 위와 같은 춤에 대한 인식의 사회적 변화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춤이 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기회에 편승하여 커뮤니티댄스를 교회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비대면 소통으로 인한 신앙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회에서의 커뮤니티 댄스의 활용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

커뮤니티 댄스의 정의의 하나의 축인 공동체(Community) 유대감 증진을 목적으로는, 눈빛이 오가고 살이 맞닿고 함께 호흡하며,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나눔이 있는 더 실제적이고 진실된 소통을 기본으로 하며, 다른 하나의 축인 춤으로서의 형식적인 면으로는 형식을 규정하기 모호한 커뮤니티 댄스의 특성상, 작게는 소극적인 울동에서부터 적극적으로는 주제를 표현하는 큰 움직임까지 포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극적으로는 예배시 찬양 중에 할 수 있는 손뼉 등 작은 울동에서부터, 적극적으로는 예배 이후 교회학교, 연령별 모임, 축제 등에서의 전문가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집단무용의 형태에까지 넓게 활용을 모색할 수 있다. 각 일선 교회 현장에서는 각 교회가 행해오던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앙공동체 회복의 목적성을 강화시켜 커뮤니티 댄스로의 발전과 새로운 유형의 커뮤니티 댄스를 개발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 IV. 결론

커뮤니티 댄스는 각자의 몸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동시에 공동체가 함께하는 춤으로서 모든 성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어, 팬데믹 기간의 비대면 시스템으로 인해 증가한 가나안 성도의 회복 및 신앙공동체의 강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커뮤니티 댄스를 통해 성도 간에 서로를 회복하고, 위로하고, 축하하고, 보듬어서 상처를 씻어내며,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고용수(2009). 『하나님나라와 교육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김지연(2014). "커뮤니티 댄스(community Dance)를 통한 정체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 박관호(2016). "정책사업 하에 실행된 커뮤니티 댄스 프로젝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예술전문사과정. 한국예술종합학교.
- 이온누리(2013) "커뮤니티댄스의(Community Dance)의 실제와 가능성 모색". 예술전문사 과정. 한국예술종합학교
- 박성희(1998). "청소년의 이해", 『청소년 심리학』. 서울: 양서원,
- 정제영(2015).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 가나안 성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서울: IVP
- 최수진(2015). "현대 교회 내 기독교무용의 인식 분석에 대한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2속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영애(2006)중세시대 교회무용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 제 11권
- 최혜리(2015). " 한국 커뮤니티 댄스의 근원, 흐름, 확장", 『무용역사기록학』, (서울: 무용역사기록학회, 제 36호,
- John. H. Westerhoff III. 김재은 역(1984), 『기독교교육논총』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 John, H, Westerhoff III., 『교회의 신앙교육』 .
- (중앙일보. 1987. 12. 23 공동체의식 높이는 성탄절로...)
- (한국일보. 2009.06.27 / 건강진료· 댄스강연도 마련)
- (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newsitem.asp?pk\\_no=1026837](http://www.daejonilbo.com/newsitem.asp?pk_no=1026837))
- (<https://naver.me/xHnTGE8U/2017.12.26.11..03> / [가나안교회]12월17일(일), 마지가나안 교회 주일모임(커뮤니티 댄스)),